



전국 YWCA 회원들의 작은 몸짓이 큰 향기 이루어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황금빛 생명의 향기로 내 마음 설레입니다.

한국 YWCA

Vol. 485 / 2011

10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엽서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Contents

- 02 • 시·시인·시심 _ 농담 _ 이문재 | 고두현
- 04 • 이임인사 _ 사랑하는 YWCA 동역자님께 | 강교자
- 05 • 신임회장 인사말 | 차경애
- 06 • 연간기획 _ 청년정의운동 I _ 결혼의 의미 | 장혜숙
- 09 • 청년정의운동 II _ 결혼의 경제학 | 양정선
- 11 • 청년정의운동 III _ 젠더적 관점에서 보는 결혼 | 변화순
- 13 • 줄인 I _ 제38회 YWCA 전국대회
- 23 • 줄인 II _ 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 26 • Y에 바치는 연가 _ 세 번의 인연 | 전용욱
- 27 • Y-돋보기 _ 장차현실
- 28 • 문화공감 _ 대학생, 일본소설에 빠져들다 | 한기호
- 30 • 이슈따라잡기 _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 오성삼
- 32 • 회원이야기 _ '아빠요리교실'로 가족사랑을 키워가요 | 우명애
_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 송지연
- 34 • 행복한 불편 _ EM최초발견, 히가박사를 만나다 | 여진경
- 36 • 세계 속의 한국YWCA _ 배고픈 내 이웃은 어디? | 이은영
- 37 • 신간소개
- 38 • 10월의 YWCA
- 40 • YWCA 현장 속으로
- 42 • 연합회 소식
- 43 • 회원YWCA 소식

2011.10

제48권 제7호 통권485호 2011년 10월 19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유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트위터 @YWCAKOREA
편집디자인 디자인21(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한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YWCA 동역자님께

제38회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없는 모습, Y 회장으로서 나의 섬김은 아니었는가? 하는 두려움과 죄송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Y 가족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회장의 책임을 마칠 수 있음은 오직 Y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Y 동역자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기에 더욱 두렵고 떨리면서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교하신 목회자의 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Y 연합회에서만 살아온 연합회 지도력, 지난 임기 동안 제1부회장으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며 힘을 모았던 차경애 회장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분들에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들으며 ‘물살이 센 물을 건널 때에는 무거운 돌을 안고 건너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거웠던 돌은 오히려 Y를 든든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조심하고 근신하며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의 돌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돌 때문에 우리는 조심했고, 이 돌 때


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돌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주셨던 과분한 책임도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비틀거리지 않도록 저를 지탱시켜주신 은혜와 축복의 돌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시원섭섭’하겠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것처럼 뜨거운 격려와 후원 속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마치는 것이니 시원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어떤 미련도 없으니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인사는 “시원섭섭하지 않고 그저 ‘감사감사’ 합니다” 입니다.

이 ‘감사감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은혜로 붙잡아 주신 능력의 손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믿어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신 Y 동역자들, 특히 사랑하는 회원 Y 가족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느끼며 감격했고,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가르침을 어기는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Y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사랑하는 YWCA와 Y 동역자님들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연합회에서 강교자 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한국YWCA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대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대에 YWCA연합회 실무자로 불러주셔서 YWCA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무자로 30년 그리고 자원 봉사자로 14년을 Y에서 지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YWCA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성운동이 무엇인지, 사회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Y에서 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Y운동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와 분열과 갈등으로 접쳐진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Y운동을 통해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성장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Y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Y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Y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Y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회장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회원Y에서 주신

기대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Y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53개 회원YWCA의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의 Y가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선배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연합회 실무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실무자들과 함께 9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향한 순례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삼았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Y가 되도록 함께 기도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출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애 회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졸업
- 대한YWCA연합회 간사, 부장(1967~1997)
- 대한YWCA연합회 위원, 위원장(1997~2006)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2004~2006)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2006~2011)

결혼의 의미

글 | 장혜숙 가족사랑상담소장



가정의 탄생, 결혼

오늘의 젊은이들은 결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일까?

국어사전에 보면 결혼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며 결혼식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다. 남녀가 만나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가정(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결혼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가정(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며 결혼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정(가족)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가정은 공동체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자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가정현장 제 2장에 보면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가족학자인 이효재 교수는 “가족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써 개인이 나서 자라며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 자아 중심적인 어린 아이들이 한 공동체 속으로 연결되어지며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증가하는 가족해체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이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고 훈련됨으로써 사회라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 준비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가족)은 생활공동체로써 사회 규범과 가치를 전수 받는 사

회화 훈련의 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가정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의 문제는 더욱 증가되어 왔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결혼 대비 이혼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황혼이혼(20년 이상 된 부부)이 전체의 이혼의 20%를 넘었으며 재혼 부부의 이혼율은 재혼대비 거의 80%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고 현대인들이 개인의 애정, 친밀성,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이혼이 급증한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필자는 오랫동안 가사 조정과 가족상담을 하면서 이혼 문제 즉 가족해체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혼문제는 부부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등의 삶과 연결되어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상상도 못했던 패륜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때문에 이제 가정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근원적인 접근을 통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본다. 이혼증가의 사회적 배경 등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모색 등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의 시작, 배우자의 선택

결혼은 배우자의 선택에서 부터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성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직업의 선택, 인생관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 주어진 환경적 여건과 함께 자신의 의지적 노력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의 선택은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해 주며, 인생관의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고, 결혼 대상자인 배우자의 선택은 우

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3~24)”

인류 최초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아담은 하와를 만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을 한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배우자 선택의 가치관

첫째, 결혼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매이다. 결혼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랑이 없는 결혼이 가장 위험한 결혼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인 한 켤레의 신발과 같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마주서야 한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은 있기 마련이다.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다. 사랑은 절대 승리를 가져오며 사랑만이 인간행위의 진정한 교정자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결혼은 한 개인의 완전한 독립과 성숙으로부터 탄생되어야 한다. 성숙하지 못하면 독립할 수 없다. 결혼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물질적 독립이 없이는 성숙한 부부로 설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단독자로서 건강하게 서 있어야 또 하나의 “너”를 만나 마주 설 수 있으며, 가정(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는 말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제도이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로써 행복의 요람이다. 사랑이란 대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복수 개념이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만드는 사랑공동체이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 진다. 이 가정은 사랑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봄을 통해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인내 등, 사랑을 실천하는 돌봄 공동체이다. 돌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의 성품이 길러지며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된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돌봄 공동체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된다.


넷째, 결혼은 인간의 독특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장이다. 결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수면욕,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장으로써 이 필요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 이 필요는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공동체 속에서 채워진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사회공동체로 이어져 질 높은 삶으로 연결된다.

“건강 가족의 숫자를 증가 시키는 것보다 인간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한 가족학자도 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에 있다. 가정(가족)이 신뢰와 헌신, 위로와 사랑의 바탕 위에 성숙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미덕과 인격이 수양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인간의 미덕과 인격을 수양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결혼의 경제학: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 |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베커(Gary S. Becker)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이제까지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의 대상이며 분야였던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에까지 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경제학은 흔히 손익계정의 학문으로 인식되지만, 사랑과 희생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인간행동도 얼마든지 경제학적으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킨 큰 업적을 남겼다.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주어진 제약과 자원의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생의 한번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혼은 개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선택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는 결혼에 앞서 지각된 결혼의 비용과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베커는 교육수준, 종교,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지닌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안정적인 결혼이 유지되고 효용이 가장 증가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동질혼을 추구하게 되는데, 즉 자신과 동일한 민족, 유사한 학력, 비슷한 가문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은 자신보다 약간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선택하려 하며, 여성은 자신보다 약간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연령이 조금 더 많거나, 학력이 조금 더 우월하거나 소득이 보다 많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의 물질적 가치관과 상업성이 더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한층 농후해졌다고 생각된다.

2010년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20~30대 미혼 직장인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들이 결혼 최소비용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평균 1억337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성 응답자들은 평균 5,667만원을 제시하여 남녀 전체 평균은 8,901만원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들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주택 마련이었으며, 남성이 제시한 결혼 비용에는 이러한 주택 장만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주택장만을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산출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5단계로 나눈 집값 중 중간 수준(3분위)은 평균 4억4천646만원으로 중간 소득(3분위) 수준인 가구 연소득(3천830만원)의 11.7배(PIR)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이 11.7배라는 것은 소득액을 모두 투입해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1.7년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생활비 지출 때문에 갈수록 가계저축이 감소한다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11.7년이라는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날지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힘든 예비부부에게 주택은 강력한 결혼 장애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안정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적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상대방 파트너는 경제학적인 논리에서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자가 되는 셈인가?

앞서 설명한 결혼의 경제학에 따르면 주택은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최적의 요소 조합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함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보다 확장된 결혼경제학의 모델에는 결혼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고려해야 하는 기대 이익에는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명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안정감 등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도 포함되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타인의 행복, 즉 이타주의 역시 그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희생이, 즉 상대방의 기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헨리의 단편집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모두가 잊

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가난한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 줄을 사 오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빗을 사오지만 그 선물은 두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 없이 내버리는 그러한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눈물나는 진정한 사랑, 가슴 뛰는 신선한 사랑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부모자식의 관계를 경험해봤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맛있고 귀한 음식을 어린 자식보다 먼저 먹는 부모가 어디에 있던가? 내배는 고파도 자식 배가 고프는 것은 견딜 수 없으며, 내가 먹어서 맛있는 거 보다는 자식이 먹고 자라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 맛있는 반찬을 앞으로 내밀고, 맛있는 과일을 배부르다며 드시지 않는 부모님의 행위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의 진수를 보여준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가장 비경제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인간의 행위이기도 하다. 침몰하여 가라앉은 타인타닉 호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주인공을 뗏목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바닷물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생과 사를 오가는 선택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가장 경제적인 행위였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였다.

결혼을 앞둔 소비자는 가장 경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의 조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용과 기대이익으로 돌아오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엄마들은 왜 항상 맛있는 간식을 싫어하셨을까? 

젠더적 관점에서 보는 결혼

● 글 |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여름 텔레비전 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의 여주인공은 자존심과 승부근성이 강하고 뭐든 자신 있다 말하고 뭐든 잘한다. ‘건어물녀’까지는 아니지만 결혼보다는 일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워커홀릭이다. 그녀는 결혼과 직업의 선택에서 고민을 한다. 반면 ‘결혼 못하는 남자’의 건축설계사 남주인공은 세련된 외모에 유능한 직업인이지만 연애는 뒷전이다. 이처럼 최근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남성 평균초혼 연령 31.6세, 여성 28.7세로 10년전 보다 각각 1.8세, 1.7세가 높아졌다. 혼인연령의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직결된다. 2009년 현재 혼인수는 309,759건,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1건) 6.2로 나타났다.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최근 성, 결혼, 출산, 이혼, 재혼 등에 관한 전통적 가족가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에 대한 태도가 자유로워지고,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젊은 남성들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정규직,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관행이 사라지고 지금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하는 풀(pool)이 대폭 줄어 결혼시기를 미루게 된다. 여성들의 직장도 불안정하기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비정

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과거처럼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결혼 후 자녀출산 후 직장과 가정의 병립을 감당하기 어려운 선배 기혼취업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또한 양성평등 가치관의 확산도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을 이끈다. 여성에게 결혼은 더 이상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생애 사건이다. 즉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대체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점차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허용되는 추세이다.

맞벌이 부부 수는 현저히 증가하여 결혼 후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이 과거에 비해 평등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즉, 가사역할분담과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화는 있다.

예전에는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가사역할은 부인의 몫이고, 남편은 가사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가사역할을 부부가 분담하면 그것은 매우 협조적인 남편이고, 안하면 부인은 참고 혼자 수행하였다. 그러나 젊은 부부의 경우 가사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부인은 ‘함께 버는데 왜 가사역할을 함께 수행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공평성의 관점에서 제기한다.

이렇듯 한국사회 부부의 실제적인 역할수행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신혼 초 적용되는 현상이고 일단 자녀를 낳게 되면 수유, 돌봄 등의 많은 역할이 엄마의 몫이다. 아빠가 함께하기에는 익숙하지 않고, 또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탄력근무제 실시, 혹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정책적 여건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 가족내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졌고, 가족놀이문화에서도 남성중심에서 부부중심 혹은 가족단위 놀이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안일을 누가 수행하는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가사역할분담, 의사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자녀가 어릴 때 아기를 돌봐주거나 우유를 먹이는 일 등은 여성들이 한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 형평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은 더욱 갈등을 경험한다.


남성/여성의 역할, 부부관계에 대한 이상적 유형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대 젊은 여성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이 큰 관심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담보다는 둘이서 똑같이 하거나 또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한다. 30·40대 여성은 '자녀교육을 함께 하는 부부'로 대화 또는 의사교환을 동등하거나, 마음 편하게 대화하는 부부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한다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신혼초 동등한 역할 수행에서 자녀가 있으면 함께 대화를 하기 원한다. 그러면 구체적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를 살펴 보건데, 역할을 공유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랑에 기반을 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가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남성의 가족 역할 참여의 확대이다. 불평등한 부부관계의 개선은 우선 가정내 역할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데 있다. 이것은 가사분담정도와 '아버지' 역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살펴보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회가 남성을 '가족 부양자'로 계속 규정하는 한 남성들의 가족 내 역할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남성의 직업역할이 남편/아버지로서 가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한다. 직업역할이 남성의 일차적 역할로 규정되므로 남성으로서의 정체감, 자아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 획득에 직업적 성공은 가족 역할과 병행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남성·여성들의 성역할 의식,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변화없이 남성에게 '성공은 기본으로, 거기에서 가정내 영역 참여/표현적 역할까지' 요구하는 것은 '슈퍼맨'을 기대하는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부부가 전략을 잘 세워 서로 유연하게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집안일 참여 증가를 기대하려면 우선 '성공'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행복'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실적으로 직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융통성 증가 등과 같은 직업구조의 변화, 즉 사용자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남편이 일찍 집에 오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남편의 출세를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가족이념이 지배적이지만, 미미하나 변화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직장에서도 조기 퇴근제나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당장 남편을 가족으로 끌어 들이는 직접적 효과는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YWCA 100년을 향하여”

● 글 |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



순례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본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일까.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초대 교회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면서 특정한 지역이나 혈통, 계급이나 성별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거리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면서 그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혈통, 계급이나 성별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한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하나님이 순례자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다.

순례길은 버리는 길

순례길을 가는 것은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를 버려야 한다. 첫째, 길들여진 습관에 대한 익숙함. 둘째, 과거의 업적에 대한 도취. 셋째,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나그네란 ‘새로운 변화에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하나님은 옛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창조하신다. “너희는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사 43:18-19)이 은총의 말씀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 순례하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순례는 신앙 그 자체다. 순례는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순례길은 걷는 길

순례길은 걷는 길이다. 그 길은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길이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 문명에 대한 심오한 비판과 대안이 숨어 있다. 우리 시대는 ‘속도(speed)’에 집착하는 시대다. 만일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해내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춘다. 느낌은 곧 기억 혹은 생각과 하나라는 말이다. 반면에,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빠르게 한다. 빠름은 곧 망각과 하나라는 말이다. 그래서 스피드는 곧 망각이고, ‘생각 없음’이며, 한 시대에 대한 순종이자 굴종이다. 우리 시대에 느낌은 곧 ‘생각하기’이고 ‘성찰하기’이며, 이 시대를 넘어서려는 ‘초월하기’이다. 그래서 느낌은 우리 시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제기이고 새 문명에 대한 멋진 상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순례는 대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다. 그것은 스피드의 찰나적 환희를 탐닉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길이다. 그 순례가 나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할 것이다.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지만 종종 우리는 순례길에서 험한 눈보라를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 하지만 이 때 과감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과 약 30보 정도를 힘차게 걸어간 다음 멈추었다가 새 출발의 기분으로 또 다시 30보를 걸어가면 똑바로 갈 수 있다. 잠시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 이는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하되 종종 새 출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똑바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또한 우리는 순례길에서 유혹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 된다. 탐욕과 소비와 황금만능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난의 영성이다. 가진 것 없어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시편 8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영성이다. 이런 영성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생명의 노래이다.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

‘돌봄으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40년 간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곧 치유하고 돌보고 구원하는 정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돌봄은 하나님의 정의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YWCA의 순례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여 이 땅에 진정한 살림의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길이 되길 소망한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우리의 순례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은 하늘로부

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생명을 살리고 불의를 불사르는 그 하나님이 숨 바람이다. 하나님의 바람은 자유케 하는 바람이다. 덧없는 것들에 묶여 있는 집착의 고리를 끊어 해방하고, 마냥 정박해 있는 배의 닻을 끊어 순례케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자유케 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순례케 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 고통과 슬픔과 억압과 파괴의 현장으로 분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바람은 자유케 하시는 바람이나 우리를 주께서 가신 갈릴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전국대회를 마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2천 년 예수님 위에 내리신 그 바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려 다짐하는 우리 YWCA 위에 강하게, 강하게 불게 해달라는 간청이다. 그 바람이 불어야 한국YWCA가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될 수 있다. 그 바람이 불어야 한국YWCA가 비로소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

나아가며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놓으셨다. 바로 YWCA를 만드신 것이다. 혹 우리 앞에 아무 대책이 없다고 낙심하여 순례길을 주저한다면,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놓았다. 내가 김활란을 불렀다. 내가 유각경을 세웠다. 내가 김필례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대책으로, 나의 동역자로 세웠다.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겠니.’

순례자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께서 우리 YWCA를 축복하시고 이 순례길 끝까지 동행해주실 것을 믿는다. 모든 영광을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께 돌린다.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하면
경품이 와르르~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

행사기간 : 2011년 9월 11일 ~ 2011년 11월 10일

행사대상 :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2011년 6월 11일 ~ 11월 10일 까지 자동이체
(계좌 및 신용카드) 신청세대(사업장)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자동이체 신청 방법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혹은 ☎1577-1000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지사 내방시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c.or.kr)링크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4대보험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경품안내

*세금(재세공과금) 공단에서 부담

- 1등** (1명) 노트북컴퓨터 (1,100,000원 상당)
- 2등** (8명) 디지털카메라 (300,000원 상당)
- 3등** (820명) 전통시장 운누리 상품권 (30,000원 상당)

당첨자 발표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당첨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및
통합징수 포털 홈페이지 (http://si4n.nhic.or.kr)에 팝업게시 안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 글 | 편집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제38회 YWCA 전국대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국52개YWCA에서 약 3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전국대회는 90주년 향한 준비를 시작하며, 대표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협의하고, YWCA 운동가로서 다짐하는 대회의 의미를 갖는다. Y 운동의 길에 초대받은 순례자들은 여정의 첫 걸음을 입장과 함께 내딛었다.

Y 정신을 되새기다

경기지역위원회가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입장을 시작하였고, 그 뒤로 동부·북부·서부·중부·연합회가 Y운동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하였다.

개회예배에서 “세상을 향하여 돌보며, 나누는 삶을 펴내는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회개와 고백이 이어졌다. 주승중 목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돌봄의 정의와 나눔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이 순례자로 부르시는 기록하신 뜻에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예배를 마쳤다.

바로 이어진 첫 번째 사무회의 시간을 통해 승격·가입 Y발표와 대회준비위원회와 공천위원회 보고, 한국YWCA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았다. 또한 실행위원 인준과 2012~20113 한국YWCA 정책제안이 있었다.

운동을 꿈꾸다

YWCA 운동 발제와 분과토의, 특별워크숍을 통해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에 대한 세부적인 운동방향과 전



▶ 입장-동부지역



▶ 돌봄, 평화, 청년 발제



▶ 공천위원 선출 투표



▶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 사무회의



▶ 함께가는 순례길-부산YWCA 브라스밴드

락을 모색하였다.

‘함께하는 순례길’ 공연이 있었는데, 부산YWCA 브라스밴드의 연주, 신은정 YWBS 아나운서의 진행, 이태원 뮤지컬 배우의 노래, YWCA 20대 실무자의 롤리폴리춤, 수원Y 다문화여성 에밀리아의 러시아 시낭송, 서울Y의 오카리나 엔젤단의 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천진 목사의 ‘순례길을 떠나기전 자신을 버리라’는 메세지도 있었다. 다양한 출연진이 정의, 평화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YWCA운동의 순례길을 함께 걷기를 다짐하였다.

세상으로 향하다

둘째 날은 아침명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대회 준비모임을 하면서 남겨두었던 ‘전국대회를 마치며 하는 나의 다짐’을 적고 옆의 사람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사무회의를 통해 전날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천위원 당선자를 발표하고, 공천위원과 실행위원을 소개하였다. 또한 회장단을 선출했는데, 차경애 전 연합회 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부회장은 김형 은화의집 운영위원장, 제2부회장에는 신희운 전 부회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 전날 제안된 2012~2013 한국YWCA정책이 채택됐는데, 한국YWCA는 크게 5개 분야, 즉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 YWCA운영의 책무성 강화, YWCA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정책실천을 통해 돌봄과 나눔의 정의평화 공동체 실현을 100년 비전으로 세우게 되었다.

2012년은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갈 YWCA 운동의 구심점을 다짐과 동시에 Y운동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YWCA 10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한 장운재 교수의 주제강연으로 순례길에 나서는 YWCA회원들에게 힘을 주었다.

마지막은 신·구회장 이·취임식, 결단과 파송예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임회장에게 드리는 감사와 이임사, 신임회장에게 거는 기대와 신임회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된 이 시간에는 떠나는 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신임회장에 대한 기대로 감동의 시간이었다. 강교자 전 회장은 “순례의 여정 길목 길목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차경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90주년 행사부터 100년 비전을 준비할 것이며,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YWCA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전국대회 역시 Y-틴에서부터 80대 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Y 대표들이 참여하여 Y운동중점을 결의하는 한국Y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국대회 시작 전 세 번의 준비모임을 통해 Y운동의 순례자로서 걸어온 길과 현재 서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강물이 깊이 흐르고, 평화의 노래 멀리 퍼지는 나라, 돌봄과 나눔이 일상적인 실천가치가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YWCA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 이름은 가나다순.

공천위원 당선자

제38회 YWCA 전국대회에서는 3명의 공천위원을 선출하였다. 차기 전국대회에서 선출할 실행위원과 공천위원 후보를 공천하는 공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2씩 개선한다.



배영자

한국 YWCA의 법규와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기도하며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현숙

YWCA를 이끌 하나님께의 일꾼을 뽑는 공천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자

YWCA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실행위원 당선자

제38회 YWCA 전국대회에서는 정수 추천된 14명의 실행위원을 인준하였다. 실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2씩 개선한다.



곽지영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YWCA에서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김경희

선도적 역할을 해온 YWCA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일하겠습니다.



김기동

시대정신을 이끌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앞장섰던 YWCA가 스스로 생동하여 세상을 살리는 운동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명희

YWCA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YWCA의 지체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경

YWCA가 이루어낸 일들 뒤에는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배우며 자원지도자로서 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체가 되고자 합니다.



문광선

빛되어 세상을 비추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YWCA의 역사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봉사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행위원 당선자



유도희

전국 회원YWCA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의 운동체로 이루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이명혜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한국YWCA가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종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려 애쓰는 일꾼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임유진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YWCA 청년성의 회복을 위해 신념을 실천하는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정진자

지금까지 YWCA에서 한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YWCA 100년을 향한 행진에 한 몫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차경애

YWCA의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통해 생명살림, 섬김, 나눔의 삶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숙자

한국YWCA 실행위원으로서 회원YWCA와 한국YWCA 발전에 헌신하며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영수

YWCA의 정신과 사랑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도록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돌봄과 나눔의 정의평화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YWCA회원으로로서

1. 돌봄노동 기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2.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매 식사마다 선헌식을 하겠습니다.
3. 스스로의 리더십을 기르고 Y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돌봄정의

- 1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연계
- 2 돌봄서비스 자격제 시행
- 3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회원YWCA 실천과제



나눔평화

- 1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 정례화
- 2 통일 리더십 교육
- 3 새터민 멘토-멘티 운동

청년 리더십

- 1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위원회 구성 의무화
- 2 청년 전문활동기(실무자)배치
- 3 청년운동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

참가기 ①

정의가 깊이 흐르며 나눔으로 평화가 널리 퍼지며

• 신영화 청주YWCA 회장

제 38회 YWCA 전국대회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37회 전국대회보다 1/3로 축소된 인원들이었지만 지역 Y회원 정예부대들로 짧은 시간에 집중 할 수 있었다. 또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조금하루 지내던 우리 삶을 평안함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1995년 세계대회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고되는 정책들, 신속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사무 처리를 보며 빠르게 성장하는 Y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정의가 깊이 흐르며 나눔으로 평화가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한 주제별 발제와 분과 토의를

를 진행하였다. 비록 주어진 시간이 짧아 많은 아쉬움은 남았지만 서로 주고받은 동역자들의 뜨거운 눈빛과 가능성은 또 다른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었다. 10월의 밤을 멋있게 수 놓아준 부산Y 브라스밴드와 서울Y 오카리나 합주단, 이태원씨의 열창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주제 강연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순례의 길에 또 다른 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순례자의 삶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날마다 버리는 삶이며,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음박질하는 경주의 길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례자들은 함께 손잡고 어깨를 맞대고 시대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는 제자 됨의 삶이 기대 되었고 가슴 벅차 올랐다.

참가기 ②

YWCA의 주축으로 든든히 서가다

• 임태영 여수YWCA 젊은이사

제38회 YWCA 전국대회는 YWCA의 목적을 나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열린 37회 전국대회에 이어 이번 38회 YWCA 전국대회까지 Y-틴이 아닌 성인Y로 그리고 여수Y를 대표하는 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Y-틴을 걸쳐 현재 청년의 나이인 내가 이번 전국대회 정책영역 중 하나인 '청년'으로서 참여한 것이 나에게 Y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을 통해 회원Y 내부적으로도 많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청년대표와 이사님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으며,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등, 전국대회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년Y의 부재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총

분히 청년Y에 큰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청년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돌봄과 평화에 대한 주제도 있었다. 이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임에는 분명하다. 이번 전국대회에 다녀 온 여수Y 이사로 분과 토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대회 프로그램 중 첫째 날 발제와 둘째 날 주제 강연의 내용은 정말이지 지금 Y에 필요한 정보와 꼭 듣고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발제의 내용들은 전국대회 개최 전에 미리 읽을 수 있어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다음 39회 전국대회는 더 많은 청년대표들의 참석으로 청년 운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채택된 정책을 회원Y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주축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 아침명상



▶ 전국대회 참가자들의 다짐



▶ 청년분과토의



▶ 함께하는순례길

제38회 YWCA 전국대회 도움주신 분들

강교자 연합회 직전 회장	김재화 복지사업단 이사장	김영정 명예연합위원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김 형 연합회 부회장	문복희 연합회 실행위원
배영자 연합회 전 실행위원	신수미 연합회 전 실행위원	신희운 연합회 부회장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이명혜 연합회 실행위원
이숙현 연합회 공천위원	이순덕 연합회 실행위원	이옥식 연합회 전 실행위원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이종임 연합회 실행위원	이행자 후원회 이사장
임희옥 연합회 실행위원	장혜숙 연합회 전 실행위원	정동신 연합회 실행위원
정유진 연합회 실행위원	정진자 연합회 실행위원	차경애 연합회 회장
최숙자 연합회 실행위원	최형선 연합회 실행위원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경기지역위원회	동부지역위원회	서부지역위원회
북부지역위원회	중부지역위원회	
농협 명동지점	(주)삼우아이티	(주)건인씨엔알
(주)피앤피클래식	부산YWCA 브라스밴드	서울YWCA 오키리나엔젤단
중곡교회 이천진 목사	뮤지컬배우 이태원	수원YWCA 아멜리아
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김은혜, 하은경	
한국YWCA 인터넷방송국 YWBS		

‘바람난 실무자, 우리 지금 만나’

● 글 | 편집실



전국의 20대 ‘바람난 실무자’, 드디어 상봉하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경남 산청 황매산청 소년야영장에서 한국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바람난 실무자, 우리 지금 만나’가 열렸다. YWCA 젊은이들의 연대를 위해 전국 20개 회원YWCA에서 20대 실무자 5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20대 실무자들이 연대와 교류를 통해 Y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Y운동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키움으로써, 단합된 Y운동가로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이 마련되었다. YWCA 전국 각지에서 손과 발이 되어 Y운동가로서 활동하는 젊은이들 50명이 모인 만큼, 황매산청 소년야영장을 활력과 활기, 웃음으로 가득찼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이번 연대모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3무(無)가 꼽힌다. 1. 강사 2. 연령초과 3. 스태프.

연대모임은 전국의 20대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거나 그동안 Y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왔던 것들을 이 장(場)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생각을

더욱 깊게 발전시키고 공고히 다지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열린 이 연대모임은 20대(91년생부터 83년생)로 한정지어 20대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은 연합회 20대 실무자가 기획하고 준비했으나 연대모임에 스태프로 참여함이 아니라, YWCA의 20대 실무자로서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오롯이 YWCA 자랑스러운 20대 운동가들만의 만남의 장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2박 3일 두 배속 빠르게 보기

첫째 날, 전국 각지에서 경남 산청으로 온 YWCA 20대 실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YWCA운동의 출발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여는 예배’로 우리들의 소중한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어 YWCA라는 공동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처음 만나는 실무자들의 어색함을 깨뜨리기 위해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이별로 5개 조로 나누어 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YWCA 젊은이들의 열기로 금새 몸도 마음도 뜨거워졌다. 청정건강식 저녁식사 이후 ‘왁자지껄 대화의 장!’을 진행하였는데, 운동가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나누었다. 그동안 혼자만 마음에 두었던 것을 솔직하게 나누며, 말하는 이는 열정을 듣는 이는 공감하며 운동가로서의 보람과 애환을 공유하였다. 이어 Y운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인 ‘내겐 너무 버거운 운동!’이 이어졌다. 각자가 하는 운동영역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YWCA 운동가로서 아우를 수 있는 Y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고민해온 ‘운동’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YWCA 청년운동에 대한 꿈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10년, 20년, 30년



2011, 20대 실무자가 Y청년운동을 제안하다

- 1위 나는 소중한니까:
건강한 청년,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 2위 매력적인 청년운동: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YWCA홍보전략 개발
- 3위 Y의 대중화: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 정체성확립, Y만의 차별화
- 4위 수요일에 발이 쉬는 슈즈데이:
여성들이여,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자!
- 5위 젊은 청년들의 국토대장정



▶ 아름다운 황매산, 바람난 실무자들을 안아준다



▶ 여는예배는 YWCA를 위한 기도와 함께 ▶ 롤링페이퍼로 우리 사랑을 고백해요




▶ 나는 운동가다

후의 Y가 설레임과 기대로 다가왔다. 진지한 논의이후, 출출함이 몰려올 때, 우리들의 돈키호테 치킨이 등장했다. 치킨과 함께 왁자지껄 우리들의 발랄한 수다는 계속되었다.

둘째 날, 이 날의 주된 프로그램은 황매산 등산인 '청년, 나를 만나다!'이다. 청소년야영장 바로 뒤로 지리산 자락인 황매산이 소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산을 우리 20대 실무자들이 씩씩하게 다녀왔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고요한 황매산의 풍광은 젊은 실무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무거운 걸음도 가볍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이건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기에 산행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했다. 내 옆에 YWCA 동료들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느낌!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기억과 마음 속에는 이 감각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YWCA라는 테두리 안에서 든든함으로 마음껏 Y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운동가다'시간에 앞으로 YWCA에서 펼쳐가길 원하는 청년운동 제안과 투표가 있었다. 열띤 토론을 하여 다섯 가지 청년운

동제안사항이 나왔다. 이 제안에는 20대 Y운동가들이 갖는 YWCA의 비전과 사회와의 접근성을 더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다. 가장 큰 투표율과 호응을 얻은 것은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20대 실무자가 이 시대 사회라는 텍스트에서 읽어낸 메시지가기도 하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행복댄스타임'에서 한바탕 춤으로 몸과 마음을 풀고,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로 나아가는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중심으로 펼쳐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세상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닫는예배로 재기발랄한 우리들의 연대모임은 막을 내렸다. 제2회 20대 실무자 연대모임을 기약하며 신바람, 생명바람으로 뭉친 '바람난 실무자'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곳'으로 향했다. 

한국YWCA 20대 실무자, 우리는 찬란하게 빛났다!

● 글 | 김아라 순천YWCA 간사

나는 1999년 Y-틴으로 시작하여 2007년까지 대학Y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Y의 프로그램과 행사는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20대만의 모임은 처음이었다. 기대와 함께 궁금증이 몰려왔다. 하지만 예상외로 연대모임의 목표는 간단했다.

"전국YWCA 20대 실무자들끼리 한번 푹푹 멍쳐보자!"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 어려운 이 목표, 우리는 이 목표와 함께 2박 3일을 보냈다.

Y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고민을 나누는 '내겐 너무 버거운 운동', 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원, 복지관 할 것 없이 젊은 YWCA에 맞는 운동을 생각한 '나는 운동가다!' 그리고 아침에 땀 흘리며 추었던 티아라의 '롤리폴리 댄스' 까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모두가 20대 실무자들을 Y라는 이름으로 푹푹 멍치게 하는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 나를 만나다!'로, 황매산 등반이다. 무려 4시간의 대장정 끝에 정상에 가득 핀 억새풀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주었다. 그 속에 선 우리는 가득 핀 억새와 새파란 하늘만큼 빛나고 있었다. 아, 그 성취감이란! 나는 자연스럽게 참가자 50여명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가 된 기분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생각은 곧 한 덩어리로 묶인 느낌 '연대'였다. 우리는 등산을 통해, 2박 3일 캠프를 통해 하나가 되고, 20대 실무자 연대모임을 통해 서로 연결 될 수 있었다. 내년에도 20대 실무자 연대모임이 열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소망한다.

● **이문희** | 83년생 조 '착한언니', 충주YWCA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대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그대로의 20대 운동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그 투박함과 솔직함이 좋았다. Y의 젊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겁없이 뛰어드는 모습에 감탄했다.

● **조고미** | 84년생 조 '꽃보다 84', 대전YWCA
Y 20대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같은 곳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은 Y인, Y에 대한 애정은 다 한마음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있는 또래 실무자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은 네트워크 구축이 되었고, 이번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이다. "YWCA 20대들이여,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운동, 운동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자!"

● **오수연** | 85년생 조 '쏘핫', 제주YWCA
너무나 많은 선물을 안고 제주로 돌아왔다. Y활동을 하며 힘들었던 것들이 Y 안에서 갖게 되는 행복에는 견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Y안에서 같은 곳을 향하여 걷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김수정** | 86년생 조 '숙녀시대', 포항YWCA
운동중점에 대해 논의할 때 정말 건전하면서도 신선한 의견들이 넘쳐나 '우리 Y의 미래는 정말 밝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선생님들, Y라는 이름아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젊음과 열정, 무엇보다 Y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던 제 1회 '바람난 실무자, 우리 지금 만나!' 2회, 3회, 4회... 해가 갈수록 더욱 새롭게 Up-grade 되어 앞으로도 쭉~욱!!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혜선** | 87-91년생 조 '소녀시대', 원주YWCA
프로그램 사업이 바빠서 진정한 YWCA운동에 대해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깨우고, 든든한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 정말 좋았다. 앞으로 내가 20대실무자 연대모임에 8번이나 더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YWCA와의 세 번의 인연

• 글 | 전용옥 LIG손해보험 돌봄배상보험 담당

첫 번째

1986년 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 햇살 환하던 그 남향의 병실 한 칸에는 신생아가 누워 있었고 한 간병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당시 스물 두살의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 내가 안타깝게 보이셨는지, YWCA에서 왔다고 인사를 하시던 신생아의 간병인이 말을 건네 오셨다. 그리고 서툴기만 했던 나의 간병에 여러 가지 조언을 들려주셨다. 그 조언은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는데 생명줄과 같게 여겨졌다. 정말 그 분께 감사했다.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YWCA와 고마운 간병인이 연상되어 작용했다.


두 번째

2005년 봄, 나는 간병인배상보험을 안내하러 연합회가 위치한 명동 1번지를 향해 갔다. 나는 두 분의 여성에게 보험설명을 드렸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 경상도 억양에 두 분이 즐거워하셨다는 것이다. 계약 이후 전국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열심히 안내를 드렸다. 그리고 보험가입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원YWCA에서 솔뚜껍이 깨졌는데 보상이 가

능한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내 보험 일생에 솔뚜껍을 보상 신청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방법을 고안해 솔뚜껍을 보상해드렸고, 그 두 번째 인연은 청소기 손잡이, 다리미, 세탁기 등 전자제품으로 발전하더니 급기야 좀 비싼 접시, 도자기, 은수저 금수저 등 실물 형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소박하며 소소함을 매개로 YWCA와의 인연이 지속되니, 이러한 소소함이 보배가 되었다.

세 번째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마흔 중반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스무 살 무렵 YWCA 간병인의 도움으로 큰 빛을 진 느낌이었는데, YWCA의 돌봄배상보험을 담당하며 간병인을 포함한 돌봄노동자들의 작은 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이렇게 YWCA와의 특별한 인연이 지속되는 것을 보며 삶의 이치마저 깨닫게 된다. YWCA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돌봄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존중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본다. 그래서 나와와 인연의 끈도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바람이 무르익는다.
알토랑 밤이 툭툭 튀어나가고
빈방송이가 바람에 흔들거린다.
빈까치지를 보는 어미들의 맘이 제각각이다.



대학생, 일본소설에 빠져들다

● 글 |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9월 18일에 공개한 전국 345개 대학 도서관의 올해 상반기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인기를 끈 책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책은 무려 52개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1위를 차지했다. 2-4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50곳),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24곳),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15곳) 등이 차지했다. 올해도 여전히 일본소설이 강세였음이 나타났다.

지난 9월 5일 발행된 <교수신문> 614호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도서관의 대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1Q84> 뿐만 아니라 <해변의 카프카> <상실의 시대> 등 하루키 소설이 많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 2005년 4월 21일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전국 14개 대학도서관 대출목록을 분석한 「한

국의 대학생 어떤 책 읽나-판타지 소설에 빠진 상아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의 중간제목은 “판타지 및 일본소설은 짹짹, 교양도서는 먹구름. 통속소설과 일본소설의 약진 앞에 인문학적 교양서적은 설 자리를 잃었다”다. 이 기사에는 ‘일류(日流)’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일류’란 대학생들이 일본소설에 빠져있는 현상을 말한다.

2000년대 내내 지속된 일류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일류’인가?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오쿠다 히데오 등은 왜 그렇게 인기를 끌까? 간단한 정답은 한국의 작가들이 우리 독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독재정권의 압박을 받아왔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문학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다. 1980년대만 해도 문학은 ‘역사성’을 최고의 화두로 삼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형식적 민주화라

도 이뤄지자 문학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 여성 인기 작가들이 쓴 소설들은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거나 '후일담'(과거를 되돌아보는) 문학이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에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생산물은 '개인'이라는 상품이었다. 신자유주의화, IMF, 문민3대 정부의 탄생 등은 이런 흐름에 기름을 끼얹었다. 하지만 작가들은 이런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로 빠져드는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소설을 써낼 수가 없었다. 그 틈을 일본소설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6-1950년생)는 타고난 근면성과 기술력으로 경제번영을 이뤄왔으며 '충중류사회'를 추구해왔다. '충중류사회'론은 '일본적 경영'론과 한 쌍을 이룬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그리고 집단주의에 물든 일본식 경영의 '회사형 인간'을 필요로 했다. 개인은 '회사형 인간'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풍요로운 사회'의 일원이 될 거라는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했다. 일본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보다 '사(社)연'을 중시한다.

'회사'와 '일'이라면 만사형통한다는 발상에 빠져들었던 회사형 인간은 자신밖에 모른다. 더구나 회사에서 기계(컴퓨터)만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가 쉽지 않다. 옆집 부엌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훤히 알고 지낸 우리 정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전차남〉이라는 소설을 한 번 보자. 22세 청년은 전철에서 취객에게 희롱당하는 여성을 도와주었다. 연애경험이 전무한 이 청년은 이후 구해준 여성으로부터 에르메스 찻잔을 선물 받으면서 연애를 시작하지만 어쩔 줄 모른다. 고민하던 그는 '2채널'이라는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에 도움을 청한다.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하나요?" 등 그의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사

람들이 답글을 단다. 게시판을 장식한 내용 그대로 책을 펴내자 〈전차남〉은 곧바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사카이 후유키의 「이과계 남성의 개인생활」(「IT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수록)을 읽으면 이런 결과를 낳은 일본인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이과계 남성은 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런 그들이 타자와의 교감을 소설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소설을 오랫동안 번역해온 이는 그래서 일본소설은 '옛보기 문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평론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소설의 주인공은 대체로 독신이거나 룸메이트와 동거를 한다. 전문직 여성도 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도 있다. 그들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독립적 사고를 하는 쿨한 캐릭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흥미로운 캐릭터들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운 일상 속에서 뭘지 모를 상실감을 느끼는 젊은 여성들에게 '관계의 쓸쓸함'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한다. 아무리 칙칙하고 어두운 소재라도 말장게 그려내는 섬세한 문체와 분위기,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몽환적 분위기나 상상력, 일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 등이 장점이다.

이런 소설들에서 삶의 진지함이란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저 아련한 추억 등 가벼운 일상만을 다루고 있다. 일본에서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영화화된 가타야마 교이치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나 이치카와 다쿠지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애인이나 가족만이 등장하는 등 극도로 축소된 인간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세상의 변화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중시한다.

이런 소설을 역사성이나 집단을 중시하던 소설을 읽고 자란 우리 작가들이 잘 써내기가 쉽지 않다. 달리 말하면 '일류'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변화가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 글 |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

한때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로버트 머튼 (Robert Merton)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며 ‘마태복음 효과’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성공은 결국 ‘누적적 이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인생 경주에서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각자의 노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먼저 들어와 영예와 보상을 차지하게 되는 선두 그룹의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또래들 보다 앞서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명문학교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으며 학력중심 사회에서 학벌경쟁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좋은 출발을 했고 그 좋은 조건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이기 보다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다. 출발선상에서의 크고 작은 차이가 남들보다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고 이 같은 기회 포착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누적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에서 고졸학력이 최종 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ABILITY



수도권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정원미달대학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고졸이 최종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학력을 출발점으로 하는 취업경쟁에서 도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낙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학력보다는 능력중심 사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고졸출신자들에게 선뜻 문호를 열어주는 기업들은 흔치않았다.

산업은행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의 3분의 1을 고졸자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고졸채용’ 바람이 금융권을 넘어 산업계와 공공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졸채용 확대를 반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해온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앞서 학벌이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좌우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토는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2%(4년제 79%)가 대학진학을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층의 대졸자 비율이 58%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상당수 학생들이 학업능력이나 배움에 대한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국가의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선 상황하에서도 연간 1000만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지불하며 너나없이 대학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인격적 차별과 평가가 이뤄지는 사회구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고졸학력만으로는 취업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취업이 된다 해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승진구조의 불이익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기에 너나없이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학교교육은 중등학교 시절부터 기술을 익혀 조기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문을 하기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따른 이원화된 교육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가 수백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학력과 직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시 명장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대학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프랑스 청소년의 일방적 대학 쏠림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 국가뿐만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수공업이 대를 잇는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다. 일본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겪으며 학력보다는 기술을 지닌 젊은이들이 취업과 사회적 대우를 받는 풍토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가까운 일본처럼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돼 왔다. 역대 어느 정부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럼에도 실패를 반복한 원인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러낸 고졸 실업계 인재들이 취업 후 정당한 보수와 승진제도의 불이익, 그리고 고졸 취업자를 탐탁잖게 여기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 코리아'의 국내 중소기업 1056개사 대상 연봉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졸자를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이 154.4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졸·대졸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도 졸업생들의 사회진출과 취업 후 급여와 승진이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자들과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졸자들의 취업 문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기업들의 자발적 문호개방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기업이 동일한 임금을 주며 고졸자와 대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채용하려 할 것인가. 학력차별금지란 모집과 채용과정에서의 기회 동등성과 채용 후 임금과 승진에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줌을 의미한다. 정부가 나서서 학력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졸취업자 확대 분위기가 현 정권의 '반짝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발의된 '학력차별금지법'이 일 년 넘게 국회에서 체류되고 있다. 대졸자들, 그것도 소위 잘나가는 대학 출신자들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고졸취업희망자들을 위한 법안이 다루어져야 하는 현실이 마치 대졸자들이 지배하는 기업문화에 고졸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읍소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차제에 기업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해 고졸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빠요리교실'로 가족사랑을 키워가요

● 글 | 우명애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아빠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와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아빠요리교실은 남성들의 가사일 분담과 가정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2009년부터 진행하여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아빠요리교실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앞치마를 입어보는 아빠! 요리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아빠! 아내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아빠! 아내가 취업을 하게 되어 일주일에 3~4번은 외식을 하게 되어 직접 요리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은 아빠!

첫날은 모두 어색하고 쑥스러워 어떻게 해야할 지 머뭇거리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오다. 처음으로 완성된 요리를 보며 모든 아빠들은 내가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기가 바쁘다. 둘째 날은 모든 아빠들이 상의를 한 듯 집에서 반찬통을 가져와 완성된 요리를 담기 바쁘다. 하나같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요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되면서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아빠들의 마음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너무나 행복해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을 만들어가듯, 모든 아빠들 파이팅! 



참 좋습니다. 반찬과 국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아내가 집 밖으로 외출하더라도 난 괜찮아요. -양진웅

요리에 눈뜨게 한곳,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척 낯설고 생소한 세제지만 나름 요리를 해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생각해온 고정관념으로 요리는 여자만 하는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승배

단순하게 생각되던 요리가 상당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가사일에 고생한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돕고자 합니다. -임창섭

요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외워야 할것도 많고 아채 손질도 힘들었습니다. 요리가 힘든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동안 집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애 먹던 음식에 대한 조리법을 익히게 되어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조양희

집에 들어가 아빠요리교실에서 배운 요리로 아이들에게 해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부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효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 글 | 송지연 제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와 육아를 공동분담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일·가정양립 가사부담완화 사업으로 '아빠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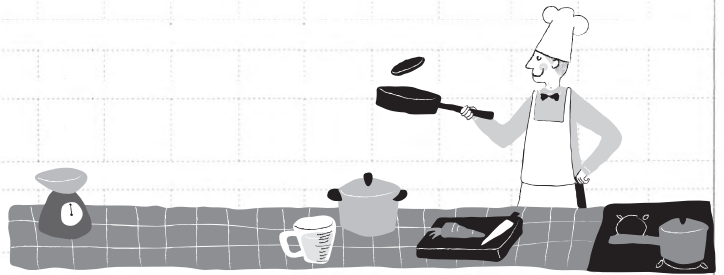
제주지역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전국 최고 높은 지역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은 반면에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 그래서 남편 스스로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는 '아빠요리교실'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다. 아마도 요리를 배우려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6월 조리실에는 양복 차림의 아버지들이 '아빠요리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속속 등장했다. 아이들의 눈에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슈퍼맨 아빠들이 연신 땀을 닦으며 강사의 말에 따라 손을 분주히 뉘가를 해보지만 생각 같지 않다. 열심히 받아 적은 메모도 모자라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문다. 이날 도전 요리는 독배기불고기, 소고기미역국, 토마토주스 등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식탁이 기대와 사랑으로 풍성했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당신도 아빠요리교실에서 요리배우면 어떨까?”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해야지.”

사실 난 10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엄마다. 요리도 잘 못하지만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주로 하고 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많이 분담해줘서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이 양립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빠요리교실 뿐만 아니라 YWCA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EM을 활용한 정화조



EM 활성액

EM을 최초로 발견한 히가 박사를 만나다

● 글 | 여진경 부산YWCA 홍보출판부 간사

부산Y는 EM운동의 출발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EM을 최초로 발견한 히가 박사를 만나고 EM활용 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이는 부산Y의 환경운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자 함이었다.

EM을 사용한 리뉴얼 건물 요나바루 수도원·EM 니카치 망고농가·쿠시가와 도서관 EM정화조 시설 견학과 EMRO연구센터 히가 박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 신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집중하였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을 보고 느껴본 모든 것을 통해 EM운동에 한 발짝 더 다가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첫 견학지. 요나바루 수도원(1995년 착공, 1958년 완공). EM을 사용하여 리뉴얼함으로써 경비를 상당히 절감하게 되었고 지진에 대한 피해도 건물을 지은 이후로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한다. 요나바루 수도원에서는 EM을 실생활에 잘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발효액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쌀뜨물 대신 밥알을 넣은 발효액, 레몬을 넣은 발효액, 폐식용유에 EM활성액을 넣어 정제한 후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요나바루 수도원 내에 크지는 않지만 농장(밭과 과실

수 몇 그루가 있는)이 있었다. 보카시가 함유된 EM활성액을 작은 PET병에 담아 밭 모서리마다, 중간 중간 두었더니 새, 쥐, 해충들이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PET병에 든 EM발효액이 파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도대체 EM활성액이 어떤 작용을 하기에 날아다니는 새도 접근을 하지 않는지..

다음 견학지. EM 니카치 망고농가. 흙 상태가 좋지 않아 EM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EM발효액을 50배 희석시켜 1~2톤과 함께 보카시를 사용한 후로 땅 지반과 나무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망고의 크기가 커지고 당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가격은 평균가 보다 조금 높아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단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수확이 끝나 많은 망고를 볼 수 없어 아쉬웠으나 파릇한 망고 잎과 땅을 보아도 충분히 EM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견학지. 쿠시가와 도서관. 쿠시가와 도서관에서는 생활하수만 정화하는 정화조를 만들어 그 물을 다시 화장실과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1년에 수도세가 120만엔에서 6만엔으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초기에는 EM활성액을 매일 14

병을 투입하였는데 지금은 3개월에 3리터를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를 안내한 EMRO연구센터의 직원은 정화되고 나오는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먹기까지 하였다. 물이 정말 깨끗하였다.

정화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바닥이 보였고 물에 담겨진 쇠사슬이 녹슬지 않고 있었다. EM의 항산화 작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M을 활용하고 있는 곳을 돌아보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한다면 창조세계가 주는 선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깊이 느낀 시간들이었다.

EM관련 견학시설에서는 EM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면, EMRO연구센터에서 히가 박사와의 만남은 EM에 대한 기존 지식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고 EM의 놀라운 효과에 경이로움을 가졌다.


히가 박사의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말 안에는 EM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묻어났다. 우리는 EM을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미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히가 박사님은 EM을 거시적으로 활용하고 계셨다.

최근에 사례를 이야기한다면,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일본 EM가족 30만 자원봉사자가 재해 지역에 파견 봉사되어 EM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피난소에 500배 희석한 액을 사용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은 것, 오염된 물에 EM을 투여함으로써 물을 정화한 것, 일본 정부에서는 물이 다 빠진 피해 논밭은 3년간 경작할 수 없다고 했으나 EM을 투입한 논밭은 이내 회복되어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반기에 구제역으로 인해 EM의 효과성에 집중된 바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미와자끼현에 구제역이 확산되어 농림부 요청을 받고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시체악취제거에는 소독약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등 EM의 효능을 본 농가에서 EM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본 바라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EM이 방사능에 미친 영향을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히가 박사는 EM을 통해 방사능을 없앨 수 있다고 15년 전부터 주장해왔으며 체르노빌 피폭자와 그 지역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히가 박사의 말에 따르면, EM엑스골드를 5~10cc 매일 먹으면 피폭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피폭을 당하였다하더라도 EM엑스골드를 먹게 되면 내외부 피폭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히가 박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정부에 지속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믿지 않았으나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으므로 인해 조금씩 히가 박사의 제안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출입금지 지역에서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피폭당한 어린이에게 EM을 투입하여 진정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원전 피해가 있기 전부터 EM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60년이 지나야 겨우 회복될 수 있는 원전피해를 EM사용한지 2개월 만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10곳에 EM스테이션을 마련하여 EM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 회복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EM은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 더 필요한 것이기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도 EM을 보급하고 있으며 EM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세계적 재해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육성되어 적시적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태도이다. 부산YWCA 뿐만 아니라 한국YWCA에 속한 여러 회원 YWCA들이 EM운동에 힘쓰고 있다. 이제는 EM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거시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세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안에 가두어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 배고픈 내 이웃은 어디?

● 글 | 이은영 국제운동 및 이슈연구팀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절대 빈곤퇴치 운동 기념비’ 개막 행사를 위해 10만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빈곤과 폭력, 기아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빈곤탈출과 인권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지 5년 뒤인 1992년, 유엔(UN)은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절대적인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 후, 해마다 10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가 이러한 결의를 기억하고 빈곤퇴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0년, 유엔은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다. 당시 191개의 회원국들은 오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평등 및 여성권한 확대 △영유아 사망률 절감 △모성건강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8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 후 유엔을 포함한 각 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수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MDGs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인권위원회, 기아대책,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ODA Watch 등 다양한 NGO단체들과 뜻에 동참하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매년 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빈곤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모금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유엔 밀레니엄 캠페인(UNMC, UN Millennium Campaign)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Stand Up, Take Action. Make a Noise for the MDGs!(일어나 행동하자, MDGs 달성을 위해 소리질러!)’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를 통해 외면받고 있는 지구촌의 경제정의 실현과 함께 절대 빈곤 때문에 비인간적 차별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알리고자 한다.

세계의 절반이 넘는 이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된다.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10월의 가을 햇살 속에서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난 7월 YWCA세계대회에서는 한국YWCA와 일본YWCA 공동 제안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 YWCA는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이 처한 빈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지원을 모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YWCA는 이미 수년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모금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해 매년 수 천만 원 상당의 분유를 북한에 전달해오고 있다.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회원 YWCA가 참여하는 전국적 모금활동으로 회원 각자가 모은 동전저금통을 기부함으로써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실질적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YWCA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모금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참여하게 하고자 한다. 



세계는 왜 싸우는가:김영미 세계분쟁지역 전문PD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분쟁의 진실

● 글 | 김영미 ● 추수밭

우리 아이들은 싸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PD이자 엄마 김영미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 취재를 하면서 본 '싸우는 이유'를 정리한 이 책은 분쟁과 갈등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인권적 이해를 넘어서 어떻게 가슴으로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에 무감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이다.

문화로 먹고살기

● 글 | 우석훈 ● 그림 | 김태권 ● 반비

생태학과 20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온 경제학자 우석훈이 '문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저자는 수출지향과 토건중독으로 한계에 부딪힌 한국의 사회경제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부분을 키우고 이 분야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 책에서는 방송, 출판, 영화, 연극, 대중음악, 고전음악, 스포츠 등 방대한 영역을 다루면서도 깊은 통찰로 성공요인과 문제 상황을 짚어내고 이에 따른 재기발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의 문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숫자'로 풀어보면서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책이다.

책아빠

● 글 | 준혁아빠 서창현 ● 네시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청아한 꿈을 심어주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으로 마흔 아홉 권의 책 이야기를 풀어간다. 언제 어느 때든 아이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들로 가득하며, 잔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할 녹록지 않은 저자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부모가 제 갈 길 가는 아이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주며 따뜻한 시선을 걸어가는 아이의 등에 보낼 것을 권하고 있다. 삶에 고단한 아빠들이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책아빠가 되어 '아이와 놀아주는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대전Y 심터 문화체험

사천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수원Y 아나바다 장터
천안Y 아이날기 좋은세상 특강 및 캠페인

2

3

4

5

성남Y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리본공예
안산Y 결혼이민여성 건강교육
충주Y 의류바자회(~14)
포항Y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대전Y 힐링시네마
"여성! 영화를 만나다" 개강
서울Y 정책제안포럼
사천Y 가사도우미 신규 교실 및 보수교육
성남Y 애들이밥먹자 캠페인
진해Y 창업지원실 - 의류수선창업 현판식
춘천Y 무료회원특강(POP 예쁜 문패만들기)

광명Y 아침밥먹기 캠페인
수원Y 면생리대교육
아나바다 장터
양산Y 다문화 여성 한국이야기 마당
진주Y 결혼이주여성 소비자교육
전주Y 북한이탈주민 정착 방향 토론회

9

10

11

12

목포Y 신안군 흑산면 부락단위한글배움터
안산Y 제3기 성교육강사 양성과정
진주Y 다문화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을 위한 의류바자회(~21)

고양Y 어린이전문대 기행
대구Y 대구YWCA 바자회
안산Y 다문화가족 배우자교육
인천Y 30/40 회원의 날
천안Y 천안시 민관합동 토론회

광주Y 가을 큰장날(~20)
사천Y 여성 지도자 양성 평등 교육
수원Y 알을알을 나눔장터
생활터발보급운동
포항Y 결혼이민여성 자국요리 경연대회 '장금을 찾아라'

16

17

18

19

23

강릉Y 바른교육연구
대전Y 후원의 밤
성남Y 산모, 아기돌보미교육(월-금)
안산Y 다문화가족 자녀건강교육
춘천Y 가사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24

고양Y 신규회원교육
광주Y 초록데이 재활용 패션쇼
논산Y 논산YWCA 10주년 기념행사
마산Y 도심하천 살리기 EM 출공 던지기
진주Y 아침식탁 캠페인 '애들이 밥먹자'
포항Y 가족상담센터-가정폭력예방캠페인

31

사천Y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멋진 시어머니, 멋진 며느리교실
성남Y 무지개인형극단 공연 (우리 모두 한가족)
수원Y 아나바다 장터
안산Y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천안Y 애들이 밥먹자
평택Y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 캠페인

30

부산Y 시니어강사단 '청춘극단과 함께 하는 노인소비자교육'
안산Y 다문화가족 자녀생활교육

25

26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강릉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 논산Y 청소년환경봉사활동
- 목포Y 2011 목포YWCA 생명살림 나눔장터
- 부산Y 착한 소비 캠페인 '폐현수막이 달라졌어요'
- 부산Y 창립65주년 기념사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
- 성남Y 학교Y틴활동 (도촌중학교, 불곡고등학교), 청소년문화존
- 수원Y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 안산Y 씽크머니 경제교실 - 대학탐방

1

- 남원Y 심신치료회복 캠프(~7)
- 대구Y 지역주민 대상 EM교육
- 진주Y 다문화수다방 찾아가는 문화나눔활동
- 통영Y 실버 어르신 소비자교육

- 고양Y 뽀빠~자, 연캠프(충남 홍성)
DMZ평화누리길 걷기행사
- 동해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수원Y 어른시 나들이
- 천안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 대구Y 결혼이민여성 백일장
- 대전Y 환경체험활동 'ECO PLAY, ECO FOOD'
- 부산Y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농촌체험학습 '울산 맑은 내 배꽃마을'
- 성남Y 다문화엄마의 한국민주사회 따라잡기-파주DMZ방문
- 수원Y 다문화가정자녀 내모습알기 캠프
- 순천Y 북한어린이분류독기를 위한 쿠키 만들기, 판매
- 안산Y 안산주말버스학교 - 조랑말농장
- 인천Y 자원순환녹색나눔장터(신밭아나바다)
- 제천Y 물을 위한 걷기 대회 및 회원대회
- 진주Y 청소년 해피스쿨 예절교육
- 충주Y 어린이환경체험
- 평택Y 씽크머니 화폐박물관 견학, Y-틴 협의회

6

7

8

- 강릉Y YWCA바자회
- 마산Y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심의
위원 한국소비자원 견학
- 부산Y 수잔솔티어사와 함께하는 특별강연회
'북한인권과 평화'
- 서울Y 큰장날
- 창원Y 유예은의 사랑의 음악회, 창원성신아트홀
- 충주Y 산도돌보미 보수교육 새일센터직중체험

- 고양Y 대학생 성사천 EM휴공 던지기
- 대구Y 돌봄과살림 보수교육
- 대전Y 문화마을만들기
'도솔에서 만나자' 담장전시회
- 통영Y 결혼이주여성 소비자교육

- 광명Y 아나바다장터
- 논산Y 요리록 조리록: 교육복지 청소년 요리교실
- 대구Y 새터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 마산Y 경남NGO박람회 참가
- 목포Y 여성 폭력 없는 목포시 만들기 캠페인
- 성남Y 학교Y틴활동
- 인천Y 보육서비스 이용자 부모 교육
- 진주Y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EM 휴공 던지기
- 충주Y 녹색장터마당

13

14

15

- 고양Y 고양YWCA여성합창단 정기공연
- 대구Y 회원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 사천Y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예비교육자 교육

- 고양Y 고양YWCA 나눔바자회
- 성남Y 청소년유해환경 야간 지도
단속 캠페인
- 안산Y 청소년 봉사캠프(~22)

- 광명Y 주말버스체험활동
- 대전Y 대학생과 함께 떠나는 인권여행
- 동해Y 행복한 동행 '임실치즈견학'
- 수원Y 다문화가정자녀 내모습알기 캠프(애버랜드)
- 마산Y 다문화가정자녀와 결식아동을 위한 일일치킴
- 부산Y 어린이농촌체험캠프 3차 여름놀이, 가을맞이(~23)
- 김해Y 가족체험학습(합천 대장경천년문화축제)
- 안산Y 다문화가족 초록에너지 캠프(~23)
- 인천Y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방한용품 아나바다)
- 진주Y 조순가정캠프(세대공감 프로젝트 - 행복한 한울타리)
- 평택Y 독거어르신 사랑의 떡 나누기
- 포항Y 여성가족부 지원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체험'

20

21

22

- 목포Y YWCA 동-서부지역 연합위원회
- 천안Y 아이날기 좋은세상 특강

- 양산Y 어린이합창단 하모니 페스티벌

- 강릉Y 아나바다 장터
- 광명Y 녹색성장체험활동-천연염색
- 광주Y Y틴 청소년노래마당
- 동해Y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발언대'
- 부산Y 부산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해피타운바자회
- 부산지역 새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 서울Y 행복한 나눔가게 가족나들이
- 익산Y EM으로 살리는 생명 세상 캠페인(~30)
- 인천Y 청소년 문화대축제 청소년 대축제 '비상'

27

28

29

Y W C A

현장 속으로



01 제38회YWCA전국대회



02 부산Y_구인구직만남의날



05 양산Y_다문화한국문화기행-거제



03 대구Y_다문화가정출산지원사업



04 진주Y_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EM흙공 던지기



06 순천Y_추석맞이 큰 장날-부각만들기



07 광주Y_부한어린이분유보내기 거리캠페인



08 남원Y_살림산모도우미교육



09 동해Y_전통시장활성화캠페인



11 충주Y_아이들과 함께하는 EM효공 만들기



10 성남Y_피스메이커Y-틴평화체험활동



12 사천Y_유해식품 전시회 및 교육

제38회 YWCA 전국대회 개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8회 YWCA 전국대회가 열렸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의 주제로 전국 52개 회원 YWCA 약 350여명의 대표들이 모였다. 금번 대회에서 차경애 전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 리더십 개발, YWCA운영의 책무성 강화, YWCA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5개 영역의 2012-2013년 YWCA 정책을 채택하였다.(자세한 내용 p.16~)

한국YWCA연합회 신임회장 기자간담회



10월 5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한국YWCA연합회 신임회장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일반, 교계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의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차경애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한국YWCA의 운동방향 설명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향후 2년간 한국YWCA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돌봄노동'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씽크머니 씨티은행 강사교육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씽크머니 씨티은행 강사교육이 있었다. 씽크머니 기초과정은 15명, 다문화과정교육에는 29명이 참여하였다. 기초과정에는 강사의 역할과 자세, 청소년과의 만남의 스킬 배우기, 씽크머니 교재연구 및 강의실습으로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과정에는 글로벌리더십과 다문화여성, 씽크머니 다문화 금융 교재 활용법 연구, 내가 만난 다문화여성이 진행되었다.

한국YWCA-모두투어 MOU체결



9월 19일 한국YWCA연합회와 모두투어 MOU 체결식이 서울 을지로 모두투어 본사에서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투어는 YWCA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 판매 매출액의 1%를 YWCA에 기부금 형태로 제공한다.

한국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바람난 실무자, 우리 지금 만나!’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경남산청항매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의 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이 있었다. 연합회 포함 43개 회원YWCA에서 총 50명이 참석한 이번 연대모임에서는 YWCA 젊은 운동가로서의 활동에피소드와 고민을 나누며, 참가한 실무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 p.23~)

3차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사업

9월 22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사업 3차 선정 위원회가 열렸다. 다문화가정출산지원 사업대상자로 출산비지원 42명, 산후관리서비스 22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기 지역

고양 YWCA ● 전선영 간사

녹색실천교육, 녹색패밀리 '지구를 부탁해'

고양Y는 9월 10일, 24일 청소년 생명사랑봉사대와 부모 50여명이 참여한 녹색실천교육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 우리의 실천들을 강의로 듣고 코끼리똥종이로 만든 실천노트에 일주일간 가족들의 생활패턴을 기록하고 물질약과 자원절약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공약을 작성하였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고양Y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여성, 인문학의 창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란 주제의 인문학강의를 9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0회 실시하였다. 인문학강좌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통찰하여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고 세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 9월 5일 전체직원활동 (성사천 BM흙공 던지기 및 외래식물제거작업)
- 9월14일 아이돌보미교육(~10월 4일)
- 9월 17일 대학생 사회봉사자교육
- 9월 20일 어린이전문대기행
- 9월 24일 강화도 역사탐방

광명 YWCA ● 백혜숙 간사

주말버스체험활동

광명Y는 9월24일 화성 창문아트센터에서 광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진행하였다.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농촌의 가을을 느끼며 두부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청진기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루페로 곤충이나 애벌레 등을 관찰하는 생태체험을 하였다.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체험활동을 통하여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고, 또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부천 YWCA ● 김해경 간사

입양가족 모임 결성

부천Y는 9월17일 입양가족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국내입양가족들이 자조모임을 갖고 입양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입양가족의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고 국내입양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성남 YWCA ● 황정아 간사

피스메이커 Y틴! 평화체험활동

성남Y는 9월 17일 학교Y틴 74명이 평화체험활동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견학하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삶을 희생한 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현충원의 원래 취지와 사회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성남Y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을 통일한국시대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평화교육 및 체험,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음악여행 『평화+나눔=사랑』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 이전 기념 감사예배

지난 7월부터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

일센터의 법인 이전 기념 감사 예배가 9월 27일 진행되었다. 1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주제로 강교사 연합회 회장의 말씀이 있었고, 2부는 연합회 실행위원, 성남Y 이사, 본부 및 센터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법인 승인 과정 및 사업 소개, 떡 케이크 커팅식, 시설 탐방 등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성남 지역 여성의 직업 개발과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소비자교육

성남Y는 9월 22일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보수집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상조서비스, 가정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소비자로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소비행태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다문화산모도우미 파견

성남Y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주일간의 산모도우미교육을 한 후, 같은 나라에서 결혼이민을 온 산모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산모들에게 아기목욕, 산모마사지, 청소, 자국의 산후조리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멀리 떨어져있는 친정어머니의 손길을 대신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출산을 앞둔 많은 산모들이 다문화산모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대기 중이다.

-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다문화 부스 운영
- 9월17일 성남시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
- 9월17일 Y틴-평화체험활동

수원 YWCA

● 이만정 간사

일일찻집

수원Y는 9월 27일 북수원감리교회에서 수원YWCA 42주년을 기념하고 북한안주지역 어린이 14,000명에게 분유를 보내기 위한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진행했다. 다양한 다과를 제공하고 EM환경제품과 기증물품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행사를 만들었다.

정자동 DIY 아나바다 매장

수원Y는 수원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9월부터 수원YWCA 로비에서 매주 수요일 아나바다 매장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나누며, 물건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재사용하며, 환경을 사랑하며 자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되살림 공간을 만들고 있다.

3분기 본지부 실무자 포럼

수원Y는 9월 15일 본지부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분기 본지부 실무자 포럼을 하였다. 2011년 실무자 포럼의 주제는 '통일'로 지난 2분기 포럼에 이어 이시우(민중예술가, 사진작가) 강사를 초빙하여 유라시아 체계와 통일, 수원기지문제, 고엽제, 통일, 평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평소 통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 9월 3일 경제동아리 화폐박물관 체험, 스쿨에코리빙컨설팅
- 9월 6일 회원증모운동 최종보고회
- 9월 7일 알음 알음 나눔장터
- 9월 10일 EM흙공만들기, Y-틴 협의회, 초등놀이프로그램
- 9월 14일 면생리대 교육, 어이말 정기모임, 아나바다 장터
- 9월 17일 스쿨에코리빙컨설팅, 환경동아리 모임
- 9월 21일 결혼이주여성 DIY프로그램(리본공예), 생활텃밭보급운동
- 9월 22일 결혼이주여성 도서관 체험
- 9월 24일 흙공던지기 활동, 다문화가정자녀 내모습알기 캠프
- 9월 27일 일일찻집
- 9월 29일 인문학강좌
- 9월 30일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참여

안산 YWCA

● 문성은 간사

학교급식조리종사원 대체인력 교육

안산Y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지난 7월 14일 '조리종사원 지역단위 고정인력풀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였다. 교육 수료 후, 관내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대체 인력 요청 시 파견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16일 YWCA/YMCA 연합예배 및 성서특강
- 9월 20일 생활정치학교(~10월11일)
- 9월 20일 학부모봉사단 희망이웃 आय회
- 9월 21일 물사랑 환경교육 -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 9월 24일 재활용 나눔장터
- 9월 24일 안산주말버스학교 - 수원화성 탐사
- 9월 24일 신나는 교과서 밖 과학여행 - 고수동굴 탐사

평택 YWCA

● 남예슬 간사

산모·가사도우미 교육

평택Y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지역 내 여성 고령자 및 구직 희망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어르신 소비자 교육

평택Y는 9월 5일과 26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노인이 소비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바르게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 교육해 어르신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경주 YWCA

● 김효영 간사

일인 다기능 직업교육 개강 및 수료

경주Y는 9월19일 부터 실시된 2011년 3기 1인 다기능 직업교육을 마치고 29일 수료식을 가졌다. 간병, 산모·신생아, 베이비시터, 가정관리,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통해 일자리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아울러 이날 EM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 9월 10일 소년소녀합창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

김해 YWCA

● 배정숙 간사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도력 양성’ 일일차집

김해Y는 9월 29일 식당 도원 연회장에서 일일차집을 개최하였다. 8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일일차집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도력 양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김해YWCA 이사들이 각기 준비한 음식들과 함께 현악앙상블·독창·실버인형극단 ‘청춘’ 공연·영상음악·시낭송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단순한 일일차집이 아닌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행사가 될 수 있었다.

토요리더십학교 개강

김해Y는 9월~11월까지 김해YWCA 강당에서 열리는 “가슴으로 배우는 토요리더십 학교”를 개강하였다. 본 학교는 김해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통해 가족, 이웃, 공동체를 돌아보며 섬김, 살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고자 경제 교육과 창의

적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본 학교는 총 12주간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창업지원센터 창업특강 및 창업 멘토링 실시

김해Y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개소 후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9월 21일에는 김덕규 과자점 대표를 초청하여 제과점 창업에 관한 창업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창업 멘토링은 20명 내외 소규모로 진행하므로 해당 전문가에게 심도 있는 질문이 가능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9월 29일에는 탈모예방 아이다모의 대표이기도 하며 직업관련 방송도 활발히 하고 있는 권영찬씨의 “생생 창업이야기” 특강 개최하였다. 권영찬씨는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터득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 강조하였다. 창업멘토링과 특강에 많은 여성들이 참가하여 최근 여성들의 창업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였다.

- 9월 5일 대청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싱크머니 학교특강”(~17일)

대구 YWCA

● 김세형 간사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사업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영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돕고자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대구YWCA에서는 6월부터 7월까지 접수를 받아 한국YWCA연합회의 심사를 거친 후 5명의 다문화가정 산모들에게 최대 60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주었다. 출산일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9월 2일 출산비지원 산모들을 위한 출산용품 전달식이 있었다. 남편들과 대구지역 다문화사업 관련자 및 대구YWCA여성능력개발위원회 이사들이 참여하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산 YWCA

● 이애라 간사

싱크머니 교사연수

마산Y는 9월 29일 싱크머니 협력학교인 창원삼계초등학교에서 교사연수를 진행하였다. 싱크머니 교재 활용과 금융, 경제에 대한 교육, 질의

응답의 시간등으로 폭넓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2011년 싱크머니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 9월 20일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 9월 23일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심의위원회

부산 YWCA

● 여진경 간사

새터민 어르신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부산Y새터민지원센터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새터민 어르신 25명과 함께 강원도 통일전망대, 38선 휴게소, DMZ 박물관을 다녀왔다.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에서 두고 온 고향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그동안의 마음을 보듬어보는 시간이었다.

50~60세 일자리 신청의 날

부산Y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23일 50세~60세 일자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신청의 날의 가졌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의 발길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구인직종은 아 파트청소원, 빌딩청소원, 룸메이드, 요양보호사, 조리사, 주차관리원, 방과후보조교사, 주방보조원, 경비원, 생산원이다. 부대행사로 나에게 맞는 화장법, 당당한 직장인 마음가짐, 이력서 작성방법 등도 진행되었다.

출산장려프로젝트 ‘여성, 아이를 다시 생각하다’

부산Y는 9월 3일, 17일, 24일 저출산 시대에 여성들이 행복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출산이 행복한 도시,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가임여성, 임산부와 함께 강좌를 진행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몸과 맘, 출산을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먹을거리 현장 견학, 부산YWCA 브라스밴드와 함께 하는 출산장려캠페인을 진행했다.

- 9월 3일 생태프로그램 “야호”, “자연탐험대”
- 9월 22일 13기 시니어강사단 ‘청춘극단과 함께 하는 노인소비자교육’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창립23주년 기념예배

사천Y는 9월7일 사천YWCA강당에서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사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립기념을 축하하며 예수 닮은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소비자의 알 권리 '유해식품 전시회 및 교육'

사천Y는 9월15일 문선초등학교 강당에서 '유해식품 전시회 및 교육'을 하였다. 향과 아름다운색깔 뒤에 숨겨진 다양한 과자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교육 후 실제 전시된 다양한 불량 식품들의 성분조사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다문화가족대상 송편만들기

사천Y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8일 삼한복지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송편만들기를 하였다. 송편과 약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한국 명절을 의미는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다문화여성 한국문화 이해 여행

안동Y는 9월 28일 안동YWCA 경북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 여행을 다녀왔다. 다문화여성 20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함께 성보촌 체험학습장에 들어서 천연염색을 한 스카프 만들기과 한지로 손거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한국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9월 22일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 9월 29일 셋강 살리기-EM 효공 던지기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다문화여성 추석맞이 송편빚기

양산Y는 9월 7일 '한하늘 문화나눔공동체'활동으로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를 하였다. 이날 공동체 활동에 참석한 다문화여성들과 지역주부들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정감 있는 대화와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문화여성 한국문화 기행

양산Y는 9월 15일 다문화가족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하여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섬과 바다가 아름다운 거제도에서 대우조선소 견학, 자연경관이 빼어난 해금강, 아름다운 섬 외도, 학동몽동해변 코스로 진행되었고 낯선 타국에서 제 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즐거운 추억, 소중한 여행이 되었다.

찾아가는 환경운동-EM 발효액무상 보급

양산Y는 9월 23일 찾아가는 환경운동 일환으로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위생개선을 통한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함께 친환경 축산환경으로의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어르신~뚝! 소리나는 소비자 되세요

진주Y는 9월 21일 진주YWCA의 노인대학 40여명을 모시고 소비자 교육을 하였다. 식품안전, 상조서비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생활의 주의할 점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소비자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9월 17일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EM효공 만들기과 던지기
- 9월 8일 이주여성 추석맞이 선물나눔
- 9월 10일 진주Y탄협의회
- 9월 17일 '사랑이 꽃피는 청소년 세상 만들기'캠페인
Y틴 동아리 '날개' 아로마 비누 만들기
- 9월 27일 회원어울림 한마당

진해 YWCA

● 박은미 간사

나눔장터

진해Y는 9월23일 창원 레포츠평원에서 나눔장터를 열고 리폼 체험 활동과 EM환경상품을 판매하였다. 이금바리꾼들의 자원봉사로 낡은 배드민턴 공을 이용하여 예쁜 열쇠고리·핸드폰 고리로 새탄생되는 체험활동에 참여자 모두 즐거워하였고 재활용의 세상이 무한하다는 사실에 모두 흥미진진해 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9월 1일 제16기 능력개발프로그램 개강
- 9월 2일 “이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교실”

창원 YWCA

● 황은진 간사

양성평등소통교육

창원Y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2011년 양성평등소통 교육 “함께 풀어나가는 양성평등 이야기 - 평등 (아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8월부터 9월까지 창원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유아기 아동 280여명(13개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분홍 I, 파랑 I / 종이봉지 공주 / 가족모두가 함께하는 멋진 우리집 / 평등 I 실천놀이 등 총 4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로 하여금 올바른 자아정체성 확립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9월 6일 EM환경교육
- 9월 7일, 양성평등이야기-평등 (아이)
- 9월 9일 아나바다 장터, 농협중앙회
- 9월 15일 오카리나 동아리 수업, 창원YWCA
- 9월 17일 청소년사이버윤리캠페인, 청소년문화존
- 9월 24일 아나바다 장터, 농협중앙회
- 9월 25일 여성단체협의회바자회, 대동백화점

통영 YWCA

● 임정순 부장

통영YWCA 캠프

통영Y는 9월 24일 통영YWCA 캠프를 열었다. 통영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대전에 있는 화폐박물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을 탐방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삶,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제3회 청소년찬양축제

통영Y는 9월 24일 청소년 찬양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예수그리스도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통영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통영YWCA와 공동주최로, 지역의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된 축제였다.

포항 YWCA

● 안진숙 간사

물가안정캠페인

포항Y는 9월 7일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추석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추석을 맞아 원자재와 농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급등하는 소비자물가에 대해 서민물가 안정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 추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되었다.

- 9월 7일 가족상담센터 부모교육
- 9월 9일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 9월 17일 인터넷 과다사용 자제를 위한 거리캠페인

북부 지역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배우고 체험하는 어린이 금융교육 씽크머니

강릉Y는 청소년들에게는 돈 잘쓰는 습관 '현명한 소비'에 초점을 맞춰 씽크머니 교육을 하였다. 경제교육강사를 모시고 성덕초, 포남초와 노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현대생활에서 경제인으로서의 YWCA 금융교육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아이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어서 금융교육이 잘 이뤄졌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현 시대의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9월 3일 청소년유해환경캠페인
- 9월 26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링 및 순찰

동해 YWCA ● 송원진 간사

전통시장활성화캠페인

동해Y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8일 시청공무원 및 상인협회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명절 분위기기에 편승한 과소비 자제, 내고장 상품이용하기 등, 검소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 9월 10일 찾아가는 해피실버드림
- 9월 11일 찾아가는 취업창구

- 9월 20일 청소년 보호법 준수 계몽활동
- 9월 30일 Y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일일차집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북부지역 실무자 직무향상 워크숍

서울Y는 9월 16일 '2011년 북부지역 실무자 직무향상 워크숍'을 열었다. 서울YWCA 대강당에 9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 프로포절 작성법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시니어 리더십 개발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서울Y는 8월 24일부터 2달에 걸쳐 '시니어 리더십 개발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9월 7일 다섯 번째 교육은 '노인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고선혜 배화여자대학 명예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건강한 식단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서울Y는 9월 19일 서울Y 대강당에서 서울시 여성정책 UP&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여성정책 모니터링 중간보고 및 정책 수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UP&IN 모니터단의 주부팀과 이주여성팀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보는 서울', '일하는 서울', '건강한 서울' 영역을 중심으로 특별 모니터링 결과와 각 팀의 정책제안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자문단인 한국법제연구원 윤정화 박사는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9월 3일 결혼이주자녀 멘토링 서약식
- 9월 8일 다문화이해활동가 '다울' 연합발대식

인천 YWCA ● 김주희 간사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인천Y 2011년 하반기 첫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가 9월 24일 토요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화장품 아나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은 화장품 아나바다라는 주제에 맞게 헌옷을 재활용한 화

장품 파우치 만들기 체험, EM을 활용한 스킨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등이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얻었다.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는 장터에서 생긴 수익금의 10%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이날 생긴 수익금은 연말에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9월 3일 그린리더스쿨
- 9월 22일 어린이 성교육자원봉사자 해바라기 아동센터 견학
- 9월 26일 29일 CAP+집단상담
- 9월 29일 EM 외부교육

춘천 YWCA

● 황재옥 간사

아기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춘천Y는 9월 19일 춘천지역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아기돌보미 양성교육을 개강하였다. 이번교육은 30명 정원으로 모집되었으며 30명 정원은 모두 취업희망자로 열의를 보이며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교육은 전액무료로 10월 17일까지 20일간 교육이 진행 된다. 전문화된 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하여 춘천YWCA는 춘천지역사회의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캠프

춘천Y는 9월 24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곤충·파충류 생태체험장으로 견학체험을 떠났다. 총 40여명의 3~6학년 초등학생으로 이번 체험환경교실의 환경 및 생태체험은 환경보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광양 YWCA

● 정정숙 간사

가정폭력행위자 집단 프로그램

광양Y여성상담센터에서는 5일부터9일까지 가정폭력행위자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알고, 비폭력을 다짐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광양Y여성상담센터에서는 8일15일,22일,29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광양시에 잠재해 있는 여성 상담원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광양시의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문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광주 YWCA

● 서정현 부장

추석맞이 도농 직거래 장터

광주Y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생활개선회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9월 6일(화) 광주Y 대강당에서 추석맞이 도농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품질 좋은 산지 특산물, 각종 장류, 제철과일, 각종 추석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선을 보였으며 여수, 순천, 보성 외 11개 시·군이 참여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거리 캠페인

광주Y는 북한어린이들에게 분유보내기 거리 캠페인을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9일 광주역 광장에서 이사·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이옥식 회장의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운동 호소문』낭독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를 알리고 현장모금과 우유모양 저금통을 배포하는 등 귀성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모금한 성금은 한국YWCA를 통해 분유를 구입하여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 9월 10일 그린탐험대 어린이체험활동
- 9월 19일 고령자인재은행 주유원 무료교육(~30)
- 9월 24일 그린탐험대 어린이 아나바다 장터
청년대학 유기농체험
- 9월 26일 돌봄과 살림 전환 2차교육(~30)
찾아가는 회원Y교육-익산Y
- 9월 27일 물가안정캠페인 - 오픈프라이스 제도 홍보
- 9월 28일 여성기관장 초청간담회
- 9월 29일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어르신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만들기

서귀포Y는 9월 17일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반석노인대학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전문 강사인 이성덕원장이 주제 강연과 어르신들이 직접 겪은 사례발표를 통해 어르신세대부터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평등세상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역 마을 찾아가 양성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두 차례 더 진행 될 예정이다.

- 9월 21일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아빠요리교실

남원 YWCA

● 조윤희 팀장

살림·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는 2011년 제1차 살림·산모돌보미 교육을 남원YWCA 회관에서 5~9일 5일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경제에 이바지하고, 소외된 여성, 중·장년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 9월 29일~30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 9월 17일 "시간탐험대"

목포 YWCA

● 정현정 부장

청소년환경교육-Eco leaf Green tree

목포YWCA와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가 2011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소년환경교육 Eco leaf Green tr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장 텃밭을 만들었다. 지난 9월 16일 해인여고 잔디밭에서 264명의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여 김장용 배추, 무, 알타리, 썩갓, 쪽파, 상추등 다양한 김장채소를 그로우백에 심어 11월까지 정성껏 가꾸게 된다. 학생들은 이날 '학교 다니면서 자기 텃밭을 갖게 될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가슴 뛰는 일이다. 아침마다 학교 오고 싶어 질것 같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며, 지도를 맡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9월 1일~3일 추석맞이 이웃돕기 바자회
- 9월 24일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강의
- 9월 28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추석에는 잊지마세요! 추석맞이 큰 장날

순천Y는 안전한 먹거리와 제품으로 한가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Y 큰 장날 진행하였다. YWCA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직접 만든 김부각과 청소년 위원들이 만든 돈가스, 젓갈, 모시송편, 굴비의 식품류와 선물 세트,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장이되었다.

순천YWCA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번 장날은 약 150명의 회원

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9월 17일 순천YWCA 청소년 문화존

익산 YWCA

● 최유정 간사

찾아가는 회원Y이사 연수

익산Y는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회원Y이사 연수를 9월 26일에 하였다. 연수를 통해 Y의 목적과 운동 중점을 이해하고 지도자와 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익산Y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전주 YWCA

● 김은진 간사

엄마가 되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전주Y는 10개월의 아름다운 시간여행을 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경기전 일대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산부 배려에 관한 설문지 및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임산부들의 고충을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 신라역사탐방

전주Y 전북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과 함께 9월 22~23일 경주로 신라역사탐방을 다녀왔다. 본 행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라역사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 9월 9일 전통시장 농산물 캠페인
- 9월 17일 청소년보호 거리 캠페인

제주 YWCA

● 강지혜 간사

2011 청년 잡 페어(job fair)개최

제주Y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30일 제주벤처마루2층 스마트

홀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2011 청년 잡 페어(job fair)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와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행사 당일 청년층에 대한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20개 우수기업(넥슨네트웍스, 다음서비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외)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층을 선발하였다. 또한 취업서류컨설팅 및 면접에 이크업, 헤어, 복장을 코칭 받을 수 있는 취업!!Step up!!관, 청년창업상담, 해외취업상담, 청년인턴상담 등의 정보제공관도 운영이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청년 창업에 대해 허심탄화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브랜드의 '마이더스의 손' 박항기 대표(메타브랜드 BBN 사장 CBO)를 초청한 <청년 창업가에게 묻다!! living library>도 함께 진행되어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고 창업을 함에 있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논산 YWCA ● 김화선 간사

하하夏夏 호호好好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일 생태 체험

논산Y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우리는 에코 발란티어” 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여성들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소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탄소제로 캠페인과,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녹색나눔장터, 녹색식물 나눔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환경과 경제, 이웃을 살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사업으로 9월 24일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하하夏夏 호호好好 가족생태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주 금강수목원에서 숲체험과 가족미션을 진행하고 가족과 함께 고구마캐기, 고구마 구어먹기, 천연염색, 고구마로 오카리나 악기 만들어 연주해 보기 등 소중한 가족과 함께 친환경 자연생태체험과 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정 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대전 YWCA ● 강은혜 부장

큰장날

대전Y는 9월 7일 땅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대전YWCA 큰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대전Y 각 상임위원회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추석 명절상품, 아나바다 의류 및 신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고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먹거리와 행운권 추첨으로 더욱 풍요로운 ‘대전YWCA 큰장날’이 되었다. 이 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 어린이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11대전여성취업·창업박람회 주관

대전Y는 9월 22일 대전광역시청 1~3층 로비에서 대전시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여성취업·창업박람회」 개최를 주관하였다. 여성들을 위한 취업관, 정보관 등 총 150여개의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취업 및 창업정보등을 제공하였고 청년취업과 성공한 여성CEO의 특강도 마련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9월 5일 회원참여의 날 ‘아토피와 안전한 먹거리’
- 9월 10일 환경체험활동 ‘ECO PLAY, ECO FOOD’
- 9월 19일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강
- 9월 20일 주부대상 소비자아카데미 개강
- 9월 23일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강
- 9월 21일 오카리나 강습개강
- 9월 28일 의류 및 세탁심의위원회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요양보호사 교육생 EM교육

제천Y는 9월 7일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EM교육을 진행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EM의 효능과 활용 방법, 만드는 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실생활에서 적극 이용할 것을 다짐하였다.

추석맞이 칼같이 봉사활동

제천Y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예상보다 많은 300여명의 이웃 주민들이 날이 무더진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와 신청을 하였다. 열심히 조를 나누어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이마에는 뜨거운 날씨 탓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타인을 위해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노동의 기쁨이 얼굴 가득하여 보람된 봉사활동이었다.

자이언츠 야구단 창단 및 제천YWCA재가노인지원센터 개소 기념 경로잔치

제천Y는 9월 7일 야구동아리 자이언츠 야구단 창단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화산동 소재 뿌리와 새싹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제천세무사회, 사회적기업 올리, 야구 동아리 멤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인근의 어르신 80여분과 내외빈 40여분을 모시고 4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보냈다.

천안 YWCA

●김상미 간사

2011년 신입회원환영대회

천안Y는 9월 8일 천안YWCA에서 이사, 간병회원, 메아리산악회원, 직원과 회원들이 모여 신입회원환영대회가 열렸다. 1부 열린예배로 시작하여 2부레크리에이션, 3부 회원증모 보고 및 시상식과 향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4부엔 다과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회원운동은 회원수63%, 회비93%로 최종집계 되었는데, 금년도 회원운동은 평생회원들을 많이 증모하여 회원수로는 목표달성에 못 미쳤으나 회비대비로는 93%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 대원들의 열정어린 회원운동 참여가 이룬 성과라고 본다.

- 9월 14일 살림돌보미 보수교육
- 9월 16일 아이날기 좋은세상 만들기 캠페인
- 9월 19일 산모도우미교육개강
- 9월 20일 나도아출장요리전문가 개강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회원의 날

청주Y는 9월 22일 청주YWCA 회원의 날에 25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충북 자연학습원 숲속에서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숲과 이야기 나누며 오전을 보냈다. 오후엔 명랑운동회를 김현기 강사의 진행으로 함께 달리고 춤추며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성직업페스티벌-내가 잡(job)을 미래의 JOB

청주Y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월30일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제

2회 여성직업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직종에 대한 소개와 커피바리스타, 북아트, 미니토피어리,꽃누르미, 생태체험학습지도사, 어린이 영어지도사등 체험을 할수있는 코너와 직업카드를 통하여 적성찾기, DISC, 이미지메이킹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코너가 마련되었다. 또한 즉석에서 면접을 통하여 취업을 할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취업에 관심 있는 많은 여성이 도움을 받았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EM만들기체험부스 운영

충주Y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관아공원에서 충주Y회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EM홍보 및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백일장이 열린 토요일에는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기 체험을 함으로서 가족 모두가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9월 20일 취약계층소비자교육
- 9월 23일~27일 EM체험부스운영
- 9월 24일 애들이밥먹자캠페인
- 9월 29일 난지도견학

IOPE

“속탄력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속탄력, 나이를 밀어내는 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다시 탄탄하게 차오르는 피부를 원한다면 속탄력을 채워 피부 속 시간을 되돌리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은 아멘토 플라본 추출물과 슈퍼오메가를 통해 피부에 생명력을 채우고, 피부 속부터 탄력을 공급하여 탄탄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경험해보세요. 속탄력이 채워지면 피부는 다시 젊어집니다.

- 아멘토 플라본은 끈적 추출물로서 피부에 생명력을 더해 주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 슈퍼오메가는 오메가3에 슈퍼항산화 시스템을 더해 탄력은 물론 화사한 빛까지 되찾아줍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아리따움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iope.co.kr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 651. 1385
 거제 055. 682. 4950
 경주 054. 772. 8141
 고양 031. 919. 4040
 광명 02. 895. 1966
 광양 061. 762. 0012
 광주 062. 524. 3511
 군산 063. 462. 4491
 김해 055. 332. 6000

나

남양주 031. 577. 7762
 남원 063. 632. 7002
 논산 041. 736. 7393

다

대구 053. 652. 0070
 대전 042. 254. 3035
 동해 033. 531. 3007

마

마산 055. 246. 8746
 목포 061. 242. 1611

바

부산 051. 441. 2221
 부천 032. 668. 9700

사

사천 055. 833. 9981
 서귀포 064. 762. 1400
 서울 02. 3705. 6000
 서천 041. 951. 6400
 성남 031. 701. 2501
 속초 033. 635. 8663
 수원 031. 252. 5111
 순천 061. 744. 7990

아

안동 054. 854. 5482
 안산 031. 483. 6536
 안양 031. 455. 2700
 양산 055. 367. 1144
 여수 061. 654. 2161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자

전주 063. 224. 5501
 제주 064. 711. 8325
 제천 043. 646. 6009
 조치원 041. 865. 2432
 증평
 진주 055. 753. 6133
 진해 055. 542. 0020

차

창원 055. 283. 9488
 천안 041. 575. 0961
 청주 043. 265. 3700
 춘천 033. 254. 4878
 충주 043. 848. 3240

타

통영 055. 641. 2537

파

파주 031. 945. 5998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하

하남 031. 793. 7771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